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다음 주일(10월 3일)은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은 방역관계로 연기합니다.
-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정관 개정초안에 대한 공청회로 모입니다. 그동안 준비한 초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합니다.
- 환절기를 지나면서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8 호

2021년 9월 2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처음 가졌던 확신

“인간적으로..”라는 말을 들으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몇 해 전에도 출애굽 이야기를 쓴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40년 광야 기간 동안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가나안 땅을 두고 그곳을 밟지 못한 이유는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자신들의 옛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시내 산으로 간 모세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 집니다. 이 불안은 불만과 원망으로 이어졌고 이런 백성들의 마음과 동화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받은 두 돌판을 내던져 깨뜨려버리지요.

아마 모세의 간절한 간구가 아니었다면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토록 힘겨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일 때문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4)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닌 민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하는 그날 밤 그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자 마음이 완고해지고 반역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교와 섬김

삶의 고통은 이다지도 힘이 셉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하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으며, 매일 짐을 싸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의 멍에를 메고 있을 때, 그 절박함 속에서의 신앙을, 그날 밤 허리를 동이고 쓴 나물을 먹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쉽게 이들처럼 되는지요.

삶의 불안한 상황들이, 작고 큰 고난과 고통들이 올 때 얼마나 자주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약속들을 얼마나 쉽게 놓아버리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평안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닌데도 편안하고 무탈한 삶을 바라고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지요.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출애굽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다른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자기희생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를 가는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결코 잃지 않으리라 단단히 다짐해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히3:14)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 말씀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93편

제목 :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4 68 397 79

1. 내용관찰(What)

- 1~2절 주님이 다스리신다 : 다스리신다 2번 반복, 위엄, 능력, 왕위를 나타내는 말들, 예부터, 영원 전 등 시간을 나타내는 말
3~4절 강물이 소리를 친다 : 강물, 큰물, 날뛰는 물결, 소리를 지르다, 더욱 높이 지르다, 날뛰며 높이 지르다. 점층법
보다 더 크시다, 보다 엄위하신 주님, 비교법
5절 주님의 증거는 견고하다 : 증거는 견고, 영원한 거룩함으로 단장

2. 내용의 의미(Why)

- 1) 주님은 위엄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 2) 주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지만, 하나님의 엄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 3)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계속 된다.

3. 의미의 적용(How)

- 1)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심을 믿자.
- 2) 하나님께서 모든 무질서를 통치하실 것을 믿자.
- 3) 하나님께서 참 통치자 되심을 선언하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미국 성공회 예배에서는 사제가 주기도 순서에 앞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주기도는 우리가 그저 대수롭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이 기도는 담력이 필요한 기도다. 우리가 이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어다”라고 기도한다. 이는 이 기도 전반부의 절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되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때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내 달라고, 보통 때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이제 영광스럽게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또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이땅에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라. 만일 이런 일이 정말 불현듯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이 유지되고, 어떤 것이 끝장날까? 정말이지, 담대함이 필요한 기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기도를 입밖에 내는 것은, 사자를 우리 밖으로 꺼내는 것이며, 원자폭탄의 위력도 무색케 하는 어마어마한 힘을 폭발시키는 것과 같다.

이 기도의 후반부를 기도하기 위해서도 당신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담대해져야 한다.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용서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의 전능을 마주하는 일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의 무능을 마주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이 기도를 견딜 만하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말은 “우리 아버지”이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아이 같은 존재가 되어 감히 그분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레드릭 뷰크너. [당신의 삶에 귀를 기울이라]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28 : 1-4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4 : 7-8 인도자
31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사무엘하 12 : 13 - 23 설교자
성가대 찬양 370 사랑방
설 교 “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하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은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저희에게 삶의 한계를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겸손히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가
세상에 참된 삶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공동기도문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나단을 통해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는 심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다윗왕은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이레 후 아이가 죽었고 그 소식을 알게 된 다윗왕은 몸을 단정하게 한 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기도한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아이가 죽은 후 금식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의 죽음에 대한 신학. 다윗은 죽은이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죽어서 만날 수 있지만 죽은 이는 자신에게 돌아 올 수 없으며 어떤 힘도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죽음에 대한 해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이는 낙원이나 스올에 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신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죽은이는 이 세상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이를 위해 추도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은이를 기억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영혼들은 부활하여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허망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허락된 하루의 삶을 기쁨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에 송편을 빚고 마당에서 탄 솔잎을 넣고 찌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꾸러기들은 코로나 이전의 추석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차장처럼 변한 도로 위 차안 풍경, 아빠엄마의 고향집을 찾아가 할아버지할머니께 큰절을 하는 그림도 보고, 차례, 성묘, 벌초, 강강술래 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열 밤 자고 만나자고 했더니 놀라며 너무 길다고 하던 꾸러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연휴 끝에 가정학습이 이어진 이번 주에 꾸러기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꾸러기들이 감사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긴긴 연휴 속에서 보낸 한주였습니다.

팬데믹 안에서 일가친척들은 잘 만났는지, 가족의 사랑은 잘 나누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월요일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검사를 받는 교사도 계셨지만

어린이 친구들 가정에는 외부출입을 되도록 삼가 달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체크 사항으로 체온과 기본 몸상태를 체크해서

올리는 리스트를 의무로 작성하여 올리게 하였습니다.

열흘만에 새로이 시작되는 학교생활이

배움과 가르침

주님의 은혜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앞에 소원을 말씀드리며

이상 어린이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한가위를 맞이하여 멋쟁이학교는 가정학습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는 친족과 만나고 연락하며 뜻깊은 시간으로 보냈을 줄로 압니다.

무림리는 여기저기 밤송이가 후두둑 떨어져서, 산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한움큼씩 주워가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등교하고 난 뒤에는 멋쟁이들과 함께 산의 풍요로움을 누릴 것을 생각하니 퍽 기대가 됩니다.

반가운 추석연휴가 지나고 나서, 선생님들은 외부 생활관을 보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닿는대로 페인트도 칠하고, 물건도 옮기고, 쓸고 닦았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멋쟁이들이 페인트 묻어가며 열심히 함께해주어서 감동의 물결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등교날부터 사용하게 될 생활관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조심히 생활하면서도 작은 낙들 안에서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식구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또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랑방공동체에서 태어나 재롱이학교, 꾸러기학교, 어린이학교를 졸업하고 올 해 멋쟁이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흥인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가던 수요일 밤, 멋쟁이학교 채팅방에 갑자기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루터기에 있는 남자 외부 숙소 정리와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을 할 것인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선생님께 내일 일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페인트 칠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은 아침 10시 30분부터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밑작업을 하고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또 새로 들어온 가구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이라 페인트를 칠하기 전 마킹 테이프를 여러 번 다시 붙이기도 하고, 페인트를 테라스 밑부분에 바를 때 붓을 떨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짜증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일을 함께 해준 이안이형, 예흠이형, 지수누나, 은유누나, 나영이누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어 조금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공동체 분들이 주신 맛있는 간식과 점심으로 먹은 맛있는 짜장면이 또한 큰 힘이 되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쟁이들이 지낼 숙소를 직접 꾸밀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겨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신 다른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푸른꿈사랑방 이흥인 학생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누가복음 9장 62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가위 후 확산되는 감염병 방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추석을 맞아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 추석에도 제한적이지만 서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촌 공동체/ 예수마음교회>
(1) 교회 가족들이 헌신하는 MCC, KAC, 평화 저널 등 매노나이트 영성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평화가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2) 교회 공동체 내 젊은 청년들이 분열과 갈등, 미래의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3) 퇴직하고 인생 3막을 시작하려는 1세대 리더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균형있는 믿음생활, 건강한 아름다운 노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정관/ 환절기 >
(1) 공동체의 정관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2) 환절기 아픈 사람들이 잘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서 한결 마음이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휴가 마냥 즐거울 수 없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고향 친지들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공동체 학교들은 연휴에 이어서 목금 이틀을 가정학습기간으로 지냈습니다. 지난 주 지리산을 다녀온 멋쟁이들은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공동체는 목,금 이틀동안 독일 방문객들이 사용할 그루터기 숙소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시설 보수와 청소를 하고, 여러 식구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방 식구들의 쉼터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섬김이 그곳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 정재훈 목사 >